

## 살펴 보기

: 현장 탐방

# 뽐송뽐송한 일상을 만드는 방습제 전문기업

## (주)새남소재



김아름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곧 장마철이 다가온다. 습기제거용으로 방습제(습기 제거제)를 활용하면 여름 장마철에도 뽐송뽐송하게 보낼 수 있다. 이토록 방습제는 우리 일상속 생활필수품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 정밀금속기계, 박물관 유물전시관 등 귀중품의 장기 저장 및 해외 수출품에도 꼭 필요한 것이 방습제이다.



새남소재 이무섭 대표(좌)와 경북산업보건센터 이미숙 선임차장(우)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주)새남소재는 국내산 천연 광물을 이용한 방습제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곳으로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터(이하 경북센터)의 보건관리 사업장으로 경북센터와 인연을 맺고 있는 사업장이다.

(주)새남소재는 1990년 설립해 태국 등 동남아시아 해외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1988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됐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매진한 결과, 습기 제거 성능이 기존 제품의 10배에 달하는 초고성능 습기 제거제를 개발해 국내 대기업인 삼성과 LG그룹 계열사를 통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으며 해외 20여 개국에 직접 수출하고 있다. 또한, 연구전담부서 운영을 통한 연구개발 결과 특허 5건, 디자인 등록 2건, 상표등록 2건 등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 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오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하였으며 2021년 2분기 경산 희망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임에도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직원복지와 안전적 노사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주)새남소재 이무섭 대표를 만나보았다.

**Q** 국내 최초로 천연광물을 이용하여 방습제를 개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천연광물을 처음 사용하신 계기가 있으십니까?

**A** 35년 전 국내 굴지의 기업 굴뚝에서 발생하는 유해 가스를 흡착하고자 국내에서 생산되는 천연광물을 이용한 방식으로 대학교수팀들과 공동연구 과정에서 관련 지식을 정립하였습니다. 이를 산업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연구개발 및 특허등록을 완료하여 국내 최초의 천연광물을 이용한 방습제 제조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임에도 2021년 경산 희망기업선정 및 2020년에는 오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을 하셨는데 사업이 잘되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의 비결과 대표님만의 철학이 있으신가요?

**A** '최고의 품질', '정확한 납기', '최적의 가격'을 경영이념 목표로 삼고, 지난 30여 년간 한 우물을 파는 마음으로 방습제(습기제거제) 한 아이템에만 집중한 결과입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저뿐만 아니라 80여 명의 새남소재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서 일구어낸 성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직원 모두가 더불어 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Q** 새남소재는 특히나 가족적인 분위기로 안정적인 노사문화와 사업장 보건관리가 잘 정착이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A**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30여 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이어 오면서 이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존공영'의 사훈 아래 함께하는 회



사 생활이 기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장 보건관리는 지난 2013년부터 보건협회 경북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이래 8년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리활동 덕분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Q**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및 탈북민 지원 등 각종 사회단체 지원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A** 우연히 도움이 필요한 결손가정 아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직접 돕고 있습니다. 후원한 아이가 '대표님처럼 남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보낸 손편지를 받았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 이무섭 대표는 영입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소신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997년도부터 지금까지 22년간 여러 아이를 후원하고 있으며 북한이주민지원센터에도 2013년부터 후원을 하고 있다. 또한 경산시 인재양성을 위해 경산시장학회 장학금도 기탁하였으며 사회적 책임실천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Q**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목표나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으십니까?

**A** 회사 설립 30여 년 만에 연 매출 154억, 직원 80여 명의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성원해 주신 고객사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새남소재는 국내 방습제 제조의 Leading Company(선도회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GLOBAL BEST NO.1 방습제 제조회사'로 성장 발전할 것입니다.

**Q** 보건협회 경북센터(보건관리팀 이미숙 선임차장 담당)가 산업보건을 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거나 앞으로 보건협회에 바라는 바가 있으십니까?

**A** 중소기업으로서는 산업보건 분야의 전문적인 정보 접근에 제한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지원해 주셨듯이 산업보건 분야의 환경변화 및 정책 변경 내용 등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의 전달 등 함께 상생협력 하는 활동이 지속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